고은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8〉

몸을 문지르는 우녀는 허상이고 진면목은 …

그녀의 수행

무욕도에 돌아온 것은 반년만이었다.

한두달치 양식을 마련해 놓고 떠난 인담으로서는 이상하게도 양식 걱정 따위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테면 무념(無念) 가운데서 시간이 흘러 가버렸고 그 시간에 대한 의식이 인담의 마음 속에 일어나지 않았던 터였는지 모른다.

우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인담을 맞이하는 그녀의 환한 웃음은 활짝 피어서 더 이상이면 시들기 시작할 것 같은 그런 모란꽃의 절정과 같았다. 아니 그것은 모란꽃이 아니라면 연꽃이나 작약꽃이라 해도 좋았다.

그런 여자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양식은 어떻게 구했느냐, 땔 나무는 어떻게 해왔느냐 따위의 지나간 일을 시시콜콜하게 묻는 일이 전혀 쓸모가 없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은근히 당부한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여간 쉬운 노릇이 아니었다.

첫째 그녀에게는 인담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기쁨이 그 환한 웃음 뒤에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이어지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향기인가'라는 인담의 궁금증 조차도 분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궁금증이 있게 되자 그만 그 향기는 코에 닿지 않고 있었다.

향기의 궁극은 향기가 없음인가. 아닐 터이다. 이런 인담의 생각은 우녀의 새로운 기쁨, 아니 인담이 오기 전에 이루어진 그 기쁨 앞에서 기름이 다 되어가는 접시의 불빛처럼 힘을 꺼뜨리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충청도의 서쪽에 저 스스로 세워진 듯한 산세의 여기 저기를 정신을 놓은 채 해매었던 것이다. 한양성밖 봉승아 밥 구렁에 내버려진 채 살아난 이후 그에게는 정신으로부터 방임(放任)된 채 살아가는 일이 있게 되었다.

충청도의 느릿느릿한 사람들의 말투도 그것이 이 세상의 말투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말투로 들리는 환각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었다. 아니 그것은 현실에 대해서 반드시 환각이라고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현실이기도 하였다.

거울을 바라보다가 그 거울 속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울 속에 반사되어 있는 또하나의 자기자신과 일치됨으로써 거울도 없어지고 거울을 바라보던 자기 자신이나 그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도 없어지는 그 이름 지울 수 없는 세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문득 인담은 한참나에 그동안 몇차례나 떠올랐던 수미산의 일부분이 임의(任意)로 떠올랐다.

그 찰라에 보여주는 수미산 정상의 그 검은 하늘에서 번쩍 번갯불과 같은 불빛이 비쳤을 때 인담은 그 아래의 철위산(鐵圍山)이 마치 커다란 성 안을 보호하는 성벽처럼 둥글게 솟아있는 삼엄한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뒤 다시 인담의 눈에는 검은 하늘 뿐이었고 수미산 정상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타버리면 재가 되어 바람에 날릴 것을"

하고 우녀가 저물어가는 썰물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중얼거렸다. 그것은 인담의 부질없는 환각에 대한 유연한 충고이기도 하였다.

"타버리면 재가 되는것이 불법(佛法)이 말하는 우주(宇宙) 아니러뇨?"

퍼뜩 인담에게 제 정신이 돌아왔다.

그때서야 그가 떠난 사이 우녀는 엄혹한 수행을 혼자 갖추어 낸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동서남북 4방(四方)과 동남 동북 서남 서북의 4유(四維) 그리고 상하를 아울러 시방(十方)이라 하는 데 바로 이 시방세계에 수많은 정토(淨土)가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이 무욕도에 앉아서 동방의 아촉불이 주재하는 묘희(妙喜) 세계가 있는 것과 서방의 아미타불이 거기에 오기를 기다리는 극락(極樂)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녀의 마음으로는 묘희세계의 빛나는 햇빛에 실컷 목욕을 한 뒤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바뀌어진 그녀 자신으로 돌아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섬에서 한 발작도 물에 건너가지 않고도 바로 시방세계의 여기 저기를 다니며 배가 고픈 적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호흡이야말로 진리를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일이며 밥을 먹고 몸 안의 남은 것을 내보내는 일이었다.

이같은 일이 현실의 가장 깊은 부위(部位)에서 가능했다. 이제 오랜 선(禪) 수행을 해온 인담의 경지 보다 우녀가 수승(殊勝)한 것이 틀림없다.

"스님 오래동안 객지를 다니는 동안 몸이 개운치 않았지요?"하고 그녀가 오랜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처럼 스스럽없이 말하였다.

"물을 데웠습니다. 제가 목욕을 시켜 드리겠어요."

인담은 저으기 놀랐다. 그가 놀란 것은 앞을 가로막은 것처럼 대담한 목욕권유를 처녀 우녀가 거리낌없이 한 것보다는 그녀가 벌써 남녀차별을 벗어난 경계에 들어가 있기때문이었다.

그는 두 손이 있되 두 손을 쓸 수 없었다.

입이 있되 무어라고 그녀의 권유에 대응할 수 없었다.

아니 그러기 전에 우녀는 인담의 옷을 마치 병든 자아비의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아내처럼 주저할 겨를 없이 벗기는 것이었다.

그동안 몇번인가 빨아서 입은 옷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풀을 먹인 적도 없거니와 다리미질을 한 적도 없는지라 그야말로 못맵시는 후줄그레한 떠돌이 막일꾼의 그것이었다.

비 맞은 가을 중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바로 그런 중의 꼬라지가 섬에 돌아온 인담의 형편이었던 것이다.

진작 방안에 들여놓은 큰 물통 가득히 제법 뜨거운 물이 차 있어서 거기서 나는 김이 방안을 희뿜하게 반투명으로 만들었다.

어떤 뜻에서는 아주 색정적인 환경이었다. 그 몽롱함과 그 비공개성 그리고 무엇보다 난숙한 정신과 몸을 함께 갖춘 아름다운 처녀와 금욕의 비구 사이의 새삼스러운 친밀감은 충분히 환희의 세계로 굴러가기에 알맞았다.

부파불교(部派佛敎) 중의 유력한 세력인 대중부(大衆部)에서는 현재다불설(現在多佛說)을 주장함으로써 시방삼세(十方三世)의 많은 부처님의 출현을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바세계와 같은 예토(穢土)에 대해서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된 낙토(樂土) 즉 정토가 있는 데 바로 이런 예토와 정토 따위의 대칭(對稱)까지 못마땅히 여긴 커다란 마음의 우주를 펼친 유마(維摩)는 "마음이 청정하면 바로 거기가 정토다"라고 부르짖었다. 우녀가 바로 그 같은 유마의 정신을 이어받아 바야흐로 때가 켜켜이 낀 인담을 목욕시킴으로써 그 때를 벗겨내면 그 청정한 몸이 바로 정토의 법체가 되지 않는 바 아님을 시현(示現)하는지 모른다. 그녀는 뜨거운 물이 실컷 김으로 피어오른 뒤 좀 온도를 낮춘 더운 물로 바뀌었을 때 그 물로 인담의 맨몸을 적셔 갔다.

때로는 물에 젖은 수건으로, 때로는 그녀의 맨손으로 인담의 몸을 더운 물에 적셨다. 물에 적셔진 곳이 이내 식으면 다시 그 곳을 더운 물로 적시기를 되풀이하였다.

이렇게 몸에 물을 적시는 동안 몸의 살갗은 물에 불어났다.

"이제 때를 한꺼풀만 벗겨드리겠어요"

그때에야 인담이 말하였다.

"내가 벗겨도 되는 데…"

그때 우녀가 낭자답지 않은 넉넉함으로 다른 말을 던졌다.

"그래… 스님! 제 몸값은 언제 갚을 작정이십니까? 제물포 뱃사공한테서 저를 외상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저를 그 사공한테 돌려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무엇이라고?"

라고 인담이 감았던 눈을 생으로 떴다. 그가 말을 이었다.

"안될 말이지. …그 처사가 우행자(雨行者 — 雨女)를 나에게 맡긴 것은 나더러 잘 보살피라는 뜻이었지요. 그 몸값이 마음에 걸립니까?"

어느덧 인담도 우녀에게 반말쓰기를 그만 두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인담의 맨몸을 손으로 정성스럽게 문질러 때를 벗겼다.

그러자니 그 손도 뜨겁거니와 인담의 몸도 구들장 아랫목처럼 뜨거워졌다.

실로 오랫만에 깊이 잠들어 있는 정욕이 일어났다. 하지만 인담은 굳이 그 정욕을 숨기지 않았다. 아니 그 소년의 맹목적인 정욕과 방불한 인담의 그것이야말로 그가 살아 있는 육송임을 실측케 하는 일이었다.

우녀는 그런 인담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므로 인담의 몸을 문지르는 우녀는 우녀의 허상이고 정작 우녀의 진면목(眞面目)은 인담의 마음 속에 들어가 인담의 몸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인담의 억누를 수 없는 정욕도 우녀의 마음이어야 하였다.

"자아 이제 이만하면 청정법신(淸淨法身)입니다. 스님"

하고 그녀의 두 손이 지극히 오묘한 손놀림으로 인담의 때를 문질러낸 뒤 인담에게서 떼어졌다. 인담의 몸은 벌판에 내던져진 느낌의 허망과 절망으로 메워지는 것 같았으나 곧 그 목욕 뒤의 의식불명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의 정욕도 화로의 불에 고드름 한 토막이 떨어져 녹아버리는 것처럼 스러졌다. 밤에게는 꼬리였고 그의 정욕에는 꼬리조차 없이 스러진 허망인 것이다.

인담은 다시 대허공(大虛空)으로서의 우주 가운데 두둥실 떠있는 풍륜(風輪)을 보았다. 어찌 보건 데 원반(圓盤)같은 모양이기도 하였다.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를 그는 듣고 있었다. 아니 그 목소리는 우행자의 것인지도 몰랐다.

풍륜의 크기는 그 둘레의 길이가 얼마인가 라는 수(數)가 아니라 무수(無數 아삼키야)였다. 다만 두께가 자그만치 1백60만 유순(由旬)이다.

1유순이 약 20리(里)이므로 그 두께도 엄청나다. 그 풍륜을 보고난 뒤 인담은 현실로 돌아와 무욕도의 방안에 있었다. 그것도 목욕을 하고 난 뒤의 맨몸에 새 옷이 입혀져서 그의 몸 아래에는 요가 깔려있고 그의 몸 위에는 이불이 덮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몸 옆에는 우녀가 머리를 감은 뒤의 덜 마른 촉촉함으로 누워있었다.

불이 탁 꺼졌다. 접시 기름이 다 바닥난 것이었다.

그림 · 최규일

인담은 저으기 놀랐다. 그가 놀란 것은 앞을 가로막은 것처럼 대담한 목욕 권유를 처녀 우녀가 거리낌없이 한 것보다는 그녀가 벌써 남녀차별을 벗어난 경계때문이었다. 그는 두손이 있되 두 손을 쓸 수 없었다.

수자령(水子靈)의 천도를 위하여 대원사에 봉안된 수자지장보살

水子靈 천도를 위한

100일 미타 기도 안내

수자지장보살(水子地藏菩薩)을 봉안하고 수자영가의 천도를 기원해 온 대원사에서는 수자영가의 천도 및 염불정진을 위한 100일 미타기도를 봉행합니다.

수자령(水子靈)이란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수자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첫째,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부터 벗어나며
셋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며
넷째, 불보살의 큰 서원에 의탁하여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 삶의 고통과 죄업에 몸부림치는 이웃들의 다정한 벗이 되어 보살의 삶을 실천하고자 합입니다.

수자지장 보살전에 부모의 죄업을 씻고 아미타불전에 수자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고 봉행되는 100일 미타기도에 여러분들의 진지한 동참을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①낙태의 죄업과 구원을 설한 장수멸죄경 ②기도용 지장보살 사진 ③사경과 사불을 위한 반야심경과 지장보살 체본 ④백일기도를 위한 일일수행법과 영가축원문 ⑤불기 2539년도 동자달력을 우송해 드립니다.

지장보궁 염불선 도량 대원사

주지 釋 玄 藏 합장

— 아 래 —

▶ 일시 : 1994년 11월 17일(입재)~1995년 2월 24일(회향)
▶ 동참회비 : 기도금(3만원) 영가 위패 1인당(5천원)
▶ 온라인 : 조흥은행 322-06-008780(석현장)
▶ 연락처 : ㉾ 546-84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전화 (0694) 52-1755 팩스 (0694) 53-0009
▶ 백일기도 기간중 년말년시 일주일간(12.26~95.1.1) 봉행하는 새해맞이 반주삼매 염불정진에 참여하실 분은 연락주십시오.

생활 한자와 예쁜 글씨를 함께 배우는

每日漢文

매월 4,000원
일시불 값 10,000원
통신 주문제 실시

漢字를 모르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비결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 속에 漢字로 된 우리말이 70%
가정과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
3개월 코스!

주요내용 : 명심보감 해설 / 고사성어 / 일반 상식 / 1일 1언(금언)

도서출판 한넋다비드
서울 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1-7 미도 B/D307
전화: 직통) 783-6113 , 253-6894~5
팩스: 785-1228 , 253-6895